

대한신경과의사회 제10대 회장 입후보자 정견 발표문 공지

2019년 10월13일(일)에 실시되는 제10대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공동 선거운동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후보자 정견 발표문을 공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대한신경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 근 호

- 다 음 -

[기호 2번 이은아 후보 정견 발표문]

존경하는 신경과의사회 회원 여러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제 10대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후보 이은아 입니다

저는 오늘 제 10대 신경과의사회 회장으로 출마하여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 가슴이 떨 정도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까닭은 이 자리가 단순 선거의 자리가 아니라, 신경과의사회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경과의사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로, 신경과 의사회의 초석을 다지시고 굳건하게 해주신, 이창훈, 신현길, 이태규, 세 분 전임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경과의사회를 사랑하고 아껴 주시는 모든 신경과의사회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와 함께 9대 신경과의사회 회장의 여정

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마음, 모든 것을 모아주신, 9대 신경과의사회 임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저는 2002년 대한신경과 개원의협의회 홍보간사로 시작하여, 지난 17년 동안 신경과의사회가 개원의협의회로부터 시작하여 봉직의와 개원의를 함께 아우르는 신경과의사회로 성장하는 시간을 함께 해 왔고,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매 순간 신경과의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년전, 제가 9대 신경과의사회 회장을 맡게 되면서 문케어가 시작되었고, 문케어는 의료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의료변혁이었습니다. 의료보장성 강화를 내세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실행에 옮겨졌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해졌고, 치매국가 책임제의 일환인 치매 안심센터는 256개 전국 보건소에 설치되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구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의사협회 및 타 영역 의료종사자들 협회들은 복지부와 의사협회와의 갈등과 투쟁구도를 이용하여, 요양병원의 한방전문의 가산 시도와 간호사 단독법등, 의사들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가 창궐하였습니다.

문케어는 마치 쓰나미처럼 의료계를 강타하였고, 저는 그 쓰나미 앞에서 신경과의사회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마치 탁구공처럼 뛰어다니며 정신 없이 지난 2년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제 임기가 끝나가게 되고, 사실 저는 임기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고, 회원 분들에게서 힘을 많이 합쳐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큰 실수 없이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평회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신경과 의사회 회장을 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면, 연임을 하여 이 난국에 신경과의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난 2년을 돌아보니, 신경과의사회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긴 했지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협상을 잘 끝내고 혹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돌아오는 길 조차, 신경과를 위해 무엇인가를 잘 해냈다는 뿌듯한 기쁨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아직 문케어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진행중인 문케어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 동안 다져놓은 정부, 의협, 학회 및 타과 의사회 등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신경과의사회 회장의 업무도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고민 끝에 10대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으로 출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는 doctor of doctors 라고 배웠습니다. 이 말은 신경과 진료가 그 만큼 복잡하고 섬세한 고난이 전문 지식과 술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의료현실은 신경과 의사가 doctor of doctors 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경과 의사회 회원 모두가 doctor of doctors의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신경과 의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진료해야 할 환자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10대 신경과 의사회 회장으로 선택해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경과 의사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경과 수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신경과 의료행위들의 수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연구관계자들에게, 신경과 의료행위의 중요성과 진료의 섬세함을 피력하고, 수가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학회와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2. 문케어의 다양한 의료정책변화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신설 급여화되는 수가결정에서 신경과의 진료행위들이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Spine MRI 급여화에 따른 판독료, 근골격계 초음파 급여화, 치매가족상담료, 신경과 척도검사 등
3. 요양병원에서 신경과 의사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수가 개발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정부관계자들과 시민단체, 환자분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경과의 신규 환자 창출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등 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지만, 막상 국가 정책으로 인해 치매환자는 국가기관으로 쏠리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등, 치매에 대한 국가 정책이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관계자들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치매에 대해서는 신경과 병,의원이 우선 진료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대국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신경과 진료에서 새로운 진료 영역들을 발굴하고, 신경과 병,의원의 신규 환자 창출을 위해서 전담팀을 만들어 함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과 진료에서 근골격, 신경초음파 활성화 및 통증 진료능력 강화
: 치매의 인지증재치료 보급화 및 홍보
: 신경과 진료에서 수면다원검사 및 판독, 진료능력 강화
: 우울, 수면에서의 인지행동치료 (CBT) 보급
: 신경과 재활, 작업치료 order권 확보를 위해 학회와 긴밀한 공조
3. 신경과 의사회가 실용적인 워크숍,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1차 의료현장에서 실전 진료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료영역을 개발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경과 의사회의 보험 전담 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경과 의사회의 보험의원회를 전담 팀으로 강화하여, 보험 급여기준 및 심사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새로 변화된 분석심사 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회원 분들께서 부당한 삭감이나 심사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부당하게 삭감 당한 경우 신경과의사회 차원에서 함께 공조하여 심평원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새롭게 변화하는 보험급여기준은 신속하게 회원 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새롭게 변화하는 문케어의 의료정책변화에 대하여, 지난 17년간의 경험으로 정부, 의협, 타과와 학회등과 공조하여, 적극 대처하여 신경과의 새로운 길을 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1. 우선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에 대한 문제점을 의협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공조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커뮤니티 케어, 방문진료뿐 아니라 원격진료 등 새롭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정책에서, 신경과 의사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여, 신경과 회원 분들이 진료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에서 신경과의 진료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회원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의료분쟁에 대비하여 전담팀을 만들고, 의협의 의료중재원과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회원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신경과 의사회 회원분들의 진료를 돕고 홍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경과 봉직의의 첫직장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며 신경과 개원을 돕고 신규환자 창출을 위해 개원 지원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 신경과 의사회 모바일 웹을 활성화 하여, 전국 어디서나 환자분들이 신경과 의사가 근무하는 병,의원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신경과 질환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경과 의사회에서 유튜브 질환 홍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환자 창출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를 신경과 의사회 10대 회장으로 선택하여 주신다면, 지난 2년 동안 신경과 의사회 회장을 하면서, 몸으로 뛰어다니며 배운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문케어로 비롯되는 신경과의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 의사가 doctor of doctors 임을, 국민, 동료의사뿐 아니라 정부관계자들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며, 국가 정책에서도, 근무하시는 환경에서도, doctor of doctors 의 위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한번 더 신경과 의사회 회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019.10.1

기호 2번 이은아 올림